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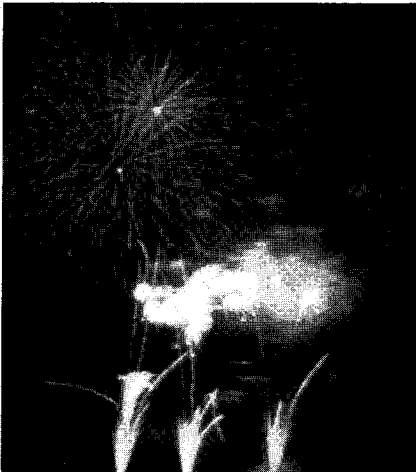
사랑의 불길

김성훈 / 생명의전화 상담부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문호 톨스토이가 1881년 발표한 단편으로도 유명한 제목이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명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을 평가해 보기도 한다.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대학에는 왜 진학하려 하는지도 모른채 맹목적으로 산 학창시절, 학문과 현실, 이론과 실체는 다르다고 그 깊은 괴리감



에 묻혀 방황하던 대학시절, 무언가 해보겠다고, 무엇을 꼭 이루어보겠다고 꿈에 부풀었던 사회 초년병 시절, 그때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해 하며 그 힘의 근원을 부로 권력으로 명예로 삼고 좌충우돌 정신없이 들진하며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다.

뒤돌아보는 인간의 삶, 아니 나의 삶은 후회하고 싶지 않고 가치있는 삶으로 평가되어지길 원하나 되짚어보면 어느 것 하나 만족한 것 없고 제대로 이루어낸 것 없는 낙제점의 인생임에, 우리는 뒤돌아 볼 때마다 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질문을 아니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가 추구했던 부나 권력이나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인가, 아니 현실의 삶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현재 이만큼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부를 추구했던 이들의 큰 공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의 노력에 발맞춰 우리 모두가 땀흘려가꾸어 온 오늘의 현실을 허무한 것으로 평가해선 아니될 것이다. 비록 지나친 권력 지향으로 한 때 고통받으며 권력지

향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때도할 수 밖에 없었고, 권력이란 말 자체에도 거부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도자란 권력이란 권위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를 최상의 삶에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권력의 힘은 믿음이다. 신뢰가 뒷받침된 권력은 우리를 하나로 엮어 맺어 있는 화음으로 생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한 참 권력을 지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오늘날만큼의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니 권력 또한 무시받을 가치는 아닐게다. 이름 하나로 일생을 보낸 많은 선조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네 인생에 참 진리를 스미도록 애쓰신 훌륭한, 세세토록 잊혀지지 않을 민족의 스승들. 안타깝게도 그 분들의 인생은 비참하도록 가난하거나, 권력자에 핍박받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소외로 쓸쓸하게 살아야 했음을 본다. 후대에 그 분들의 높은 학식과 덕망으로 그들을 추앙하지만, 요즈음의 명예란 것은

속성과가 있는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그래서 빨리도 잊혀지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버렸다. 그래서 명예를 쫓는 이들이 마치 한심한 몽상가로 치부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올바른 삶을 위한 높은 이상의 본이 되는 명예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큰 가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는 부질없는 일장춘몽과 같다고들 하니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고, 사람은 진

“
**진정 사랑을 해 본 이들은
 사랑의 무서운 힘을 알고 있다.**
 네가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기다려지는 그 마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니 더 줄 것이 없는지
 두리번대게 하는 그 마력을
 경험해 왔으리라.



정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필자는 톨스토이의 단편에서 다음을 인용하여 보고자 한다. 한 가난한 구두장이 세문과 그의 아내 마뜨료나,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미하일을 통해 인간 간의 깊은 내부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과 자신만의 삶을 위한 지식은 아무 보잘 것 없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써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다. (자세한 내용은 꼭 읽어서 음미해 보길 바랍니다.) 즉, 결론은 인간은 사랑으로, 그것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그들까지도 포함한 우리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혼해빠진 진리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찌 존재하겠는가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기에 또 그 얘기, 뻔한 얘기라는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유행가 가사에, T. V나 영화의 주제로, 소설의 주제로 사랑에 빠지면 안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사랑의 홍수로 가득한데, 더 이상 무슨 사랑, 맞는 말인것 같다. 그러나 진정 사랑을 해 본 이들은 사랑의 무서운 힘을 알고 있다. ‘어린 왕자’에서의 여우처럼 그의 머리카락같은 갈대를 보면 설레이고, 네가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기다려지는 그 마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니 더 줄 것이 없는지 두리번대게 하는 그 마력을 경험해 왔으리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것처럼 인생에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말하고 넘어가야겠다.

거리의 간판처럼 혼한 사람에 우리는

넋을 빼앗기고, 혼이 달아난다. 사랑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미쳐 버리게 된다. 사랑의 불길은 다른 대상은 모조리 태우고, 있는대로 녹여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도 사랑받는 자도 함께 미쳐버리고, 사랑하는 자도 사랑받는 자도 재가 되도록 훨훨 타오르는 불길로 변질되는 것이다. 모든 허물과 죄들을 덮어주고 태우는 불길이다. 아니 덮어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태워 없애버리는 열기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좀 더 숭고하게 말하면 인간애를 좇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로 말할 수 있겠다. 부의 가치도, 권력의 힘도, 명예의 생명도 사랑으로 빛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부를 가진 자도, 권력을 손에 넣은 자도, 명예를 얻는 자도 사랑으로 그를 지탱하지 못하면 허망한 일장춘몽으로, 가졌어도 가지지 못한 허기로 가진 자의 포만감과 행복감은 절대로 느낄 수 없다. 부의 목적 가치가 인간애이기에 그의 축적과 분배도 인간애에 바탕되어야 하며, 권력의 궁극적 목표 또한 인간애이기에 인간 모두를 위한 희생과 봉사라 나타나야 되고, 명예 또한 올바른 인간애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참 진리를 찾아 알리는 높은 이상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우리를 좀 더 평온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며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며, 그 사랑이 불길로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로의 귀결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불길은 훨훨 타올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보자. †